

사슴의 飼育管理

編輯室

1. 새끼사슴의 사육

어미 사슴은 새끼를 분만하면 털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새끼를 핥아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분만된 새끼는 2~3 시간도 채 못되어 본능적으로 일어서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나야 완전히 절을 수 있다.

어미사슴은 새끼에게 모성애를 발휘하여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새끼 뒤를 쫓아 다니며 항문을 핥아 주어 배변(排便)이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새끼가 젖을 먹고난 후에는 새끼가 안전하도록 나무밑이나 바위뒤에 숨기고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며 어미사슴이나 새끼에는 불안을 느낄 만한 행위는 삼가해야 하며 암수가 같이 사육되고 있는 농장에서도 이 때만은 격리 사육하는 것이 좋다.

어미가 새끼의 항문을 자주 핥아 주는 것은 새끼의 배변을 돕는 본능적인 생리현상이지만, 간혹 너무 지나치게 새끼의 항문을 핥아 주어 항문 주위가 헐어 버리고 항문주위염이 생겨 항문괄약근의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배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머큐러크롬같은 것을 발라주면 오히려 더 핥아 버리므로 항생제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배변이 자유스럽

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관장을 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포유상태가 정상적이면 2~3 개월부터는 어미 사슴을 본받아 풀도 조금 씹기 시작하며 4개월 정도가 되면 어미 사슴은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젖을 먹이려 들지 않는다. 어린 사슴이 배합사료(고단백질 사료)나 풀을 먹기 시작하면 사료에 비타민과 미네랄(광물질)이 들어 있는 사료 첨가제를 넣어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 새끼의 경우 영양대사 장애로 탈모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폐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 초유(初乳)와 이유(離乳)

출산 직후의 새끼사슴은 분만 후 5일까지의 초유로 자라고 그 초유 기간이 지나면 보통 젖을 먹게 되는데, 초유는 새끼 사슴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분비되어 축적된 것으로 단백질과 지방의 함유량이 높아서 새끼 사슴의 장(腸)을 세척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더우기 이 초유에는 면역성단백질인 글로불린(globulin) 종류의 양이 현저하게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점이다.

따라서, 초유를 먹지 않으면 병균의 침입을 이겨낼 길이 없게 되는데, 그것은 갓난 새끼사슴의 혈청(血清)에는 감마글로불린(γ -globulin)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초유중의 면역성 단백질은 빠른 속도로 새끼사슴의 소화기를 거쳐 체내에 흡수되고 질병의 침입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유의 중요한 기능은 새끼사슴의 장에 들어있는 태변(胎便)을 배출시키는 일이다.

이 밖에도 초유에는 보통유(乳)에 비해 칼슘, 인, 염소, 마그네슘, 철분등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의 함량이 많은데 92~96%의 소화율로 그 성장을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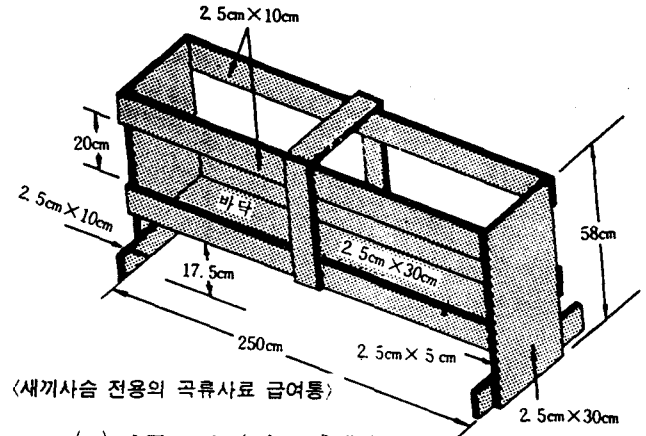
새끼사슴이 초유 다음으로 보통유를 먹는 기간은 3~4개월이다. 이 때가 되면 이유(離乳)를 해도 자연 사료를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이유시키는 부드러운 풀이나 배합사료 같은 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실시해야 한다.

사슴은 태어나서 한 달이 되기 전부터 주위의 부드러운 풀이나 나무가지를 씹으며 흡같은 것도 먹는 습성이 생기는데, 이유 시기가 가까와지면 미리 부드러운 야초나 소화가 잘 되는 배합 사료같은 것을 충분히 공급하여 성장 발육에 차질이 없게 하는 한편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사료첨가제를 투여하면 한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새끼사슴의 사육에서 이유는 시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일찍 이유시킨 새끼사슴은 어미사슴과 함께 오랫동안 사육된 새끼사슴보다 그 성장발육이 좋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새끼사슴은 이유 시기가 끝나면 겨울철을 맞게 되는데, 몹시 추운 날씨 관계로 열 에너지의 소모도 많은 데다 겨울철 사료는 건초 상태라 영양분도 많지 않아서 성장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런데다 이유 후 곧바로 어미사슴의 사료와

똑같이 급여하게 되면 새끼사슴의 위장 기능이 완벽하지 못한 관계로 위장 장애를 일으켜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소화기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로 인한 영양대사 장애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유된 새끼사슴은 어미사슴과 격리하고 소화가 잘 되는 질 좋은 건초와 영양가 높은 사료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새끼사슴 전용의 곡류사료 급여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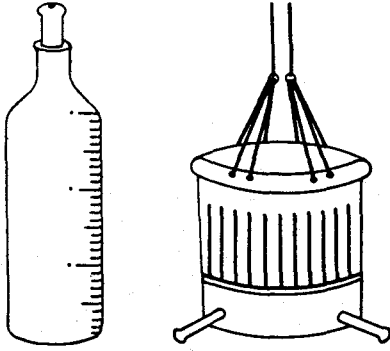
(2) 인공 포유 (人工哺乳)

분만 후에 어미사슴이 죽거나 너무 허약하여 포유가 어려운 경우, 질병에 걸린 경우 젖을 먹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인공 포유가 불가피하다.

새끼사슴이 초유를 먹지 못한 경우에는 새끼가 죽은 다른 어미사슴의 젖을 먹이는 것이 좋다. 처음에 유모(乳母) 사슴의 젖을 먹일 때에는 유모 사슴의 젖이나 오줌을 새끼사슴의 몸에 바른 후 유모 사슴을 붙잡고 젖을 먹이면 유모 사슴은 새끼사슴과 쉽게 친근해진다.

유모사슴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공 포유를 한다. 인공포유를 시작할 때에는 우선 새끼사슴을 어미사슴과 격리시킨 다음 젖꼭지가 하나 달린 우유병(Mono test)을 사용해서 입에 물려 빨게 한다. 포유할 때 처음에는 면양유를 코나 입 주위에 발라 냄새

를 맡게 한 후 헛바다에 한 두 방울 떨어뜨려 맛을 알게 하고는 손가락으로 혀를 움직이게 자극한 다음 빨려는 동작을 하게 되면 젖꼭지를 물려서 빨도록 유도한다. 2~3일간 습관을 들이면 잘 순환되고 먹는 것도 잘 한다.



左 : <젖꼭지가 하나인 우유병>

右 : <젖꼭지가 여러개인 우유통>

초유 이외의 인공포유는 우유나 양유(羊乳) 및 탈지유(脫脂乳)에 마아가린을 혼합한 것 등을 38℃로 데워서 젖꼭지를 물리게 하면 잘 먹는다.

처음에는 1일 6회 정도 주며 1회의 양은 150cc 정도씩 급여하고 새끼사슴의 성장에 따라 조절하여 급여한다.

만일 여러 마리의 새끼를 한곳에서 사육할 때에는 젖꼭지가 여러 개 달린(Multiple teat) 대형 우유통을 사용해서 기른다.

인공 포유시 주의할 점으로는 포유를 시킬 때는 스폰지나 수건같은 것을 따뜻한 물에 넣어 짠 후 등, 뒷다리, 아랫배, 머리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고, 특히 항문 주위를 문질러 배변반사를 일으켜 주며, 차거운 젖은 설사의 원인이 되므로 체온 정도로 데워서 먹인다. 우유통은 끓인 물에 씻어서 말린 뒤에 사용하며, 찌거기 우유나 변질된 우유는 먹이지 말고 신선한 것을 먹인다. 젖은

소량씩 자주 먹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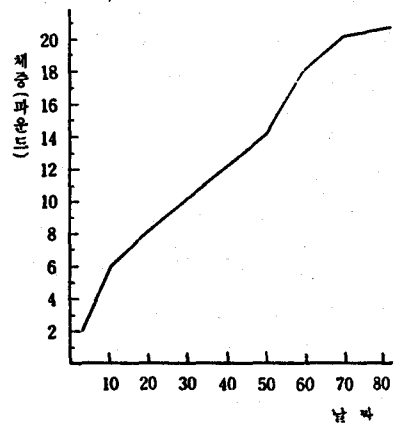
인공사육시 우유 1일 급여량

생후일수	우유 (1온스의 물에 1/4 온수의 분유)
2 일	20 온스 (10회)
9 일	23 온스 (7회)
21 일	26 온스 (7회)
25 일	26 온스 (7회)
28 일	27~30 온스 (6회)
37 일	35~40 온스 (5회)
43 일	37 온스 (5회)
58 일	40 온스 (5회)
75 일	40 온스 (4회)
94 일	30 온스 (2회)
120 일	이 유

사슴유·우유·면양유의 화학성분 비교

종 류	지 방 (%)	단백질 (%)	유 당 (%)	회 분 (%)	총고형물 (%)
사슴유	6.7-10.0	8.9	4.4	1.1	23.3
우 유	3.7	3.3	4.8	0.47	12.5
면양유	5.3	5.5	4.6	0.90	19.3

새끼사슴의 성장 속도를 관찰해 보면 밑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루 사슴의 경



<사슴의 성장속도(노루)>

우 80일이 되면 20 파운드의 체중을 유지한다. 즉 어미의 몸무게에 약 1/3에 해당하는 체중으로서 이 때가 되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3) 인식표 (認識票)

새끼가 태어나면 사슴을 개체별 (個體別)로 구별하기 위해 사슴의 귀에 인식표를 달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것은 사슴의 순종 (純種)을 유지시킨다거나, 개량종을 만든다거나, 치료시 그전의 증세를 알수 있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2. 성록 (큰사슴)의 사육관리

대개 1년이 지나면 체구가 성수 (成獸)와 같은 면모를 갖추며, 수사슴의 경우는 각좌 (별밑자리)에서 뾰족한 뿔이 약간 돌아 나온다. 암사슴은 1년 이상이 되면 임신이 가능하며 새끼를 분만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 만 2년이 되어야 성수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최적기이며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기후,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1) 암사슴의 사육관리

암사슴은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번식을 주로 하는 농장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개 늦가을부터 발정이 와서 교미를 시작하면 6, 7월 경이면 새끼를 분만하게 되는데, 임신기간 동안 영양관리를 잘못해 난산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운 겨울 기간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열량이 많은 고단백질사료를 많이 급여하는 것이 좋다. 이 때는 대개 임신 1~3개월의 시기이므로 태아의 착상 (着床) 및 영양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봄철이 되면 차츰 태아가 커지는 시기이므로 너무 지나친 양의 고단백질사료를 공급할 필요가 없다. 너무 비대하게 살이 찌면 오히려 난산 (難産)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5~6월 경이 되면 자주 운동을 시켜서 태아가 과태 (過胎)가 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야만 순산 (順産)을 가져올 수 있다. 좁은 우리 안에서 사육되는 사슴의 경우, 운동부족 비만증 등으로 말미암아 난산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

(2) 수사슴의 사육관리

수사슴은 앞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점이 상징적인 특징이며 이 뿔의 성장은 성호르몬과 관계가 깊으므로 계절에 따라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3~5월이 되면 딱딱하게 굳어 버린 뿔이 떨어지고 (낙각) 겨울 기간 난폭했던 자태는 변하여 아주 온순한 사슴이 된다. 이 때부터 머리에는 혈액이 유통하는 말랑말랑한 뿔 (낭각)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60~90일 사이에 뿔을 잘라 약재로 사용하는 것을 녹용 (鹿茸)이라 하며, 자를 때 많은 혈액이 나오므로 녹혈 (鹿血)도 함께 채취한다. 또한 이 시기는 암늬이 임신을 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수컷이 접근하면 암컷은 앞발로 차거나 물어 뜯어 접근을 막으므로 더욱 처량하게 보이는 때이다.

뿔이 자라는 기간은 뿔이 상할세라 조심스러우며 겁이 많은 소심한 동물이 된다. 뿔은 8, 9월이 되면 서서히 굳기 시작하여 10월 정도가 되면 아주 딱딱한 뿔로 변하며 뿔을 땅이나 나무 기둥에 비벼대며 더욱 날카로운 뿔을 만들고 투쟁의 무기로 삼는다. 이때부터 발정은 시작되며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인다. 여기서 몇차례의 도

전을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한 수컷은 모든 암사슴을 거느리고 다른 수사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위로 들어 식식 거리며 위용을 부린다. 암사슴들은 승리한 수컷에게 순종한다. 한 마리의 수컷이 거느릴 수 있는 암컷의 마리수는 50여마리까지 가능하나 10~15마리의 암컷에 종록(種鹿) 1마리를 넣어 주는 것이 적당하다.

이 발정기 동안에 동종간 우위 다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암수를 따로 사육시켰다가 발정기가 되면 왕위를 차지한 수놈만을 암놈 칸에 넣어 번식을 하도록 하며 만일 암놈이 발정이 되지 않아 수놈에게 쫓겨 다니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면 일방적인 수놈의 교미욕으로 암놈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잠시 격리시켰다가 합사하는 것이 좋다.

발정 기간 동안 수사슴은 다양한 습성을 나타내게 된다. 대충 15가지의 양적 습성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권세형, 접촉형, 복종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권세형(權勢型)

㉠ 공격적인 접근

수사슴은 상호 반응의 의사를 접근방식으로 표시하는데 뛰어가면서 접근하기도 하고 걸어가거나 측면으로 걸어가기도 한다. 수사슴은 집합적으로 공격적인 접근을 한다. 공격적인 접근은 굽실거리기도 하고, 또는 털을 곤두세우면서 허리를 웅크리고 위용을 과시하며 빈번히 달려든다.

㉡ 코를 들어올리는 행위

코를 들어 올리는 행위는 비록 시기는 다르지만 진사슴과(眞鹿科) 사이에 대체로 권세형 습성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습성은

머리와 입을 짹싸게 들면서 나타낸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앞니와 갈기를 들어낸다. 수사슴은 머리를 들었을 때에 종종 가볍게 씹씹하고 콧김을 뿜어 내는 것같은 소리를 낸다.

이 때에 상대방은 대개 7~8m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이며,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위용에 눌려 후퇴하거나 복종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종치 않는 사슴은 결국 충돌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 녹각의 하향(下向) 표시

녹각의 하향 표시는 표적을 겨누는 의식적인 습성이며, 녹각은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수단이 된다. 그것은 진사슴과에 있어서는 전형적이며 많은 진사슴에 관해 기록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습성은 머리를 아래로 수그리면서 천천히 흔들어대며 녹각으로 상대방을 겨냥한다. 이러한 습성을 나타낼 때에는 수사슴은 코를 들어 올릴 때 보다는 상대방을 향해 더욱 접근한다.

㉣ 추적(追跡)하기

뛰어가거나 추적하는 것은 공격을 명확히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대개 상대방을 후퇴시키게 된다. 수사슴은 보통 목청을 높여 으르렁대면서 추적하며,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 이러한 습성을 보인다.

㉤ 발로 차거나 구르기

수사슴은 권세형 습성에 따라서 이동하는 상대방을 노려볼 때에 때때로 양쪽 앞발을 공중으로 차거나 앞발 한쪽을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구른다.

운동을 시켜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며, 열량이 많은 사료를 급여해서 체력을 상승시켜 준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새끼의 경우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체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폐사하는 경우도 생긴다.

수사슴은 겨울철 기간 많은 정력을 소모하므로 농후사료를 많이 주어 체력을 보강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암사슴의 경우도 임신 초기이므로 영양 보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럴 때에는 비타민이나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사료에 섞어 줌으로써 효과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소화촉진 효소제나 위기능 항진제 등을 투여해서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어미사슴들과 새끼를 한우리 안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힘이 센 놈이나 어미들에게 밀려서 새끼들은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여 약한 사슴이나 새끼들은 더욱 약화되며 특히 사료를 물에 버무려 주는 경우는 힘이 센 성록들이 먹고 난고 난 후 새끼들이 먹게 되므로 사료가 얼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얼은 사료를 먹게 되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며 탈수 현상으로 더욱 털이 거칠고 마르며 심하면 위장염을 유발, 폐사하기도하므로 겨울철에는 사료를 물에 버무려 주지 않는다.

설사를 하여 탈수된 사슴은 물을 먹여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물을 주지 않으면 탈수현상이 심해져 기력이 떨어지고 병의 회복이 늦어진다.

사육장내의 급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약화된 사슴들은 격리칸을 마련하여 격리 사육을 하며 보온 시설을 하여 추위를 막아 준다.

(2) 봄철의 사육관리

봄이 되어 날씨가 풀리면 활동이 활발해

지고 식욕도 증가하며 새로 나온 청초(靑草)를 즐겨 먹는다.

이 때는 사슴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때이므로 영양관리에 신경을 써서 영양대사 촉진제를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양상태(營養狀態)가 좋으면 환모(換毛)가 빠리어서 선명한 색깔의 피모(被毛)를 갖게 되지만 겨울 동안에는 영양 상태가 대체로 나빠서 털이 거칠고 탈모(털이 빠지거나 칼로 벤 것같이 잘려 나감) 현상으로 보기 싫은 상태가 된다.

환절기에 주의할 점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를 가져와서 과식(過食)을 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암놈은 이 때부터 몸이 약간씩 무거워지며 늦봄에 이르러서는 복부의 팽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만기가 가까와 오므로 너무 비대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하며 가벼운 운동을 시켜 태아가 과태되지 않도록 한다.

영양상태가 나쁘다고 콩이나 옥수수를 물에 불려 많이 먹이는 것은 영양가는 많지만 이러한 사료를 분해, 소화하는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오히려 부담이 되는 수도 있다. 특히 옥수수는 위내에서 분해될 때 많은 산(酸)을 발생시키므로 위장점막을 자극하여 위장을 무력하게 하는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

수놈은 이 때에 낙각이 시작되며 새로운 뿔이 생성되는 시기이므로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갑작스런 충격에 놀라 뿔을 부딪쳐 상하게 되면 출혈이 있을 뿐 아니라 이상각(異常角)이 되므로 유의한다.

(3) 여름철의 사육관리

초여름이 되면 수놈의 경우는 뿔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내려쬐는 대낮에 절각하는 것은 위험하며 서늘한 새벽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합사료를 많이 먹여 키운 사슴은 위장 내에서 그대로 흡수하여 비대해지나 지방 축적이 심하여 대사성질환이 생기기 쉬우며 활동상태도 우둔하여 심한 운동을 시키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쇼크사」를 초래하기 쉽다. 대개 녹용 채취를 하는 절각 시기에 나타나며 순환기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암놈의 경우는 때를 같이하여 분만을 시작하는데 미리 분만시기를 예측하여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사육장 내를 청결히 하여 오염된 곳에서 새끼를 분만하지 않도록 한다. 간혹 과태나 이상분만으로 난산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의뢰하여 인공분만시키거나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다.

장마가 있는 여름철은 질병이 만연하기 쉬운 시기이며 사육장 내가 습하고 오염되기 쉽다. 특히 오물의 배출이 잘 안되어 악취가 나며 기생충감염이나 세균감염, 곰팡이의 번식이 잘 된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사육장 내를 소독하고 파리, 진드기, 모기 등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살충제를 뿌려주면 좋다.

또한 사료의 부패 가능성도 많아 하리성(下痢性) 장염(腸炎)을 초래하는 수도 있다. 이럴 때에는 항생제나 설파제 등을 사료에 섞어 투여한다. 사료통은 습기가 많아 곰팡이의 번식이 염려되므로 물로 깨끗이 닦고 햇볕에 말려 사용함이 이상적이다.

여름철에 햇볕을 받은 풀은 항상 하루 전

에 베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퍼 두었다가 급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뉘 즉시 급여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급성 고창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4) 겨울철의 사육관리

수놈의 경우 뿔이 굳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몸의 색깔도 변하여 암갈색으로 된다.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대개 발정이 와서 교미를 시작한다.

수놈이 발정하였을 때는 머리를 하늘로 쫓히고 식식거리며 울부짖고 사람이 접근하면 덤벼들 자세를 취한다.

암놈은 새끼를 분만한지 3~4개월이 되는 때이므로 젖을 잘 주지 않는 등 새끼에게 신경을 덜 쓰며 자립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

발정기인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에 사교가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암수를 격리 사육하고 어린 새끼들은 따로 격리하여 사육하는 것이 좋다.

암놈의 사육장에 종록(種鹿)만을 같이 넣어 사육하되 암놈이 20마리 이상이 되면 후보 종록을 한마리 더 넣어 주면 만일 수태가 안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발정이 온 암놈이 있는 곳에 수놈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 우위 쟁탈을 벌려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하고, 수놈이 심하게 발정 증상이 있을 때는 사육자도 사육장내 출입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을철에는 겨울에 대비하여 건초(乾草)를 준비하여야 한다. 건초로는 대개 떡갈나무잎, 상수리나무잎, 칩덩굴, 아카시아잎, 싸리잎 등이다. *